

3. '김 교수'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며 말한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신 인구의 증가만으로 저출산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독신 인구가 줄면 출산율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독신 형태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독신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이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결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점이 출산율이 낮아진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⑤ 독신 인구 중에는 자신의 편리함 보다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4~7] (가)는 라디오 방송 보도이고, (나)는 (가)를 청취한 학생이 그 내용을 교지에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라디오 방송 보도

사회자 :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관련 법이 발효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애초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의 휴일 영업을 규제하자며 도입한 것이지만, 이 법이 전통 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명한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박사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취지는 전통 시장을 살리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전통 시장이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강 박사 :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는 대형 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고 시민들이 전통 시장에서 쇼핑하도록 유도하여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보도된 것을 보면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 매출도 10~2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 규제 취지와는 달리, 시민들의 대형 마트 이용도 줄고 전통 시장 이용도 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강 박사 :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0%가 대형 마트 휴무일에 아예 쇼핑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결국 목적과 다르게 전통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만 침해하는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요,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정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 의무 휴업 때 전통 시장의 매출액이 정상 영업 때와 비교해서 10.4%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박사 : 네. 이 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 시장의 매출 증가분은 대형 마트 매출 감소분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다수의 구매자들이 쇼핑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전통 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고, 전체적인 소비 감소와 소비자의 선택권만 제한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만일 전통 시장 활성화의 효과만 높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조금 위축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 박사 : 물론 그렇죠. 저처럼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비자 선택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서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형 마트 때문에 전통 시장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그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영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사회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군요. 그러면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 박사 : 그것은 일단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권에 굉장한 침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 주중 휴일을 고려한다면,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면 하는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나) 학생의 초고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관련 법안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의 휴일 영업을 ㉠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전통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통 시장의 매출이 10~20%정도 감소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는 대형 마트 이용과 함께 전통 시장 이용도 준 것으로 지정된 휴무일에 쇼핑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 마트 의무 휴업 때 전통 시장의 매출액이 정상 영업 때와 비교해서 10.4%가 늘

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형 마트 매출 감소분보다 ㉔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법안이 전체적인 소비 감소와 소비자의 선택권만 ㉔ 제한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㉔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 시장 활성화의 효과만 높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조금 위축되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 소비자 선택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해서 대형 마트의 영업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A]

4. (가)의 ‘사회자’와 ‘강 박사’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상대방 발화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들어 질문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강 박사가 한 발언의 요지를 정리하고 있다.
- ③ 강 박사는 자신의 발언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강 박사는 사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고 있다.
- ⑤ 강 박사는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보기>는 위 방송을 청취한 후 부부가 나눈 대화이다. 위 대화(A)와 <보기>(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남편 :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모양이네요.
 아내 : 그러게요. 우리라도 가급적 전통 시장을 이용해야겠어요.
 남편 :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이용할 만한 전통 시장이 있어요?
 아내 : 몇 군데 있어요. 저번에 봐 둔 곳이 있으니 내일 가 볼까요?

- ① A는 B와 달리 특정한 대화 목적을 미리 설정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② B는 A와 달리 사전에 계획된 일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받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③ A와 B는 모두 경어적 언어 표현이 제한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④ A와 B는 모두 가상의 청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⑤ A와 B는 모두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6. (나)의 ㉑~㉔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규제 하기위해’로 고쳐야겠어.
- ② ㉒ : 접속 표현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하지만’으로 고쳐야겠어.
- ③ ㉓ : 문맥상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은’으로 고쳐야겠어.
- ④ ㉔ : 부적절한 사동 표현으로 ‘제한받고’로 고쳐야겠어.
- ⑤ ㉕ :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내영이기 때문에 삭제해야겠어.

7.<조건>을 고려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글 (가)의 ‘강 박사’의 입장을 반영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② 전통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이 상생해야 한다.
- ③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 ④ 전통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⑤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관련 법안은 달콤한 미끼일 뿐이다.

[8~10] 다음 <보기1>과 <보기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1>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신문 기사를 읽고, 화제에 대한 동일한 관점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논설문 쓰기
- 신문 기사 내용 :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충분한 수면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청소년 스스로 생활 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수립한 논지의 방향 :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학습 부담감을 감소시켜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선생님이 알려 주신 유의 사항

“논설문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논제를 정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료화해야 합니다. 특히 논제는 글을 읽는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활용할 자료]

(가) 청소년 수면 부족의 이유(중복 허용, 연구원)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학교 및 학원 수업	78%
지나치게 많은 숙제와 시험 준비	68%
TV 및 음악 감상, 컴퓨터 게임	59%

(나)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 (수면 재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고등학교 1학년	5시간 48분	6시간 32분	7시간 18분
고등학교 2학년	5시간 34분	6시간 18분	7시간
고등학교 3학년	5시간 14분	6시간 8분	6시간 54분
전체	5시간 32분	6시간 19분	7시간 4분

※ 10~17세 권장 수면 시간 : 8시간 30분~9시간 15분

(다) 전문가 의견

청소년기의 수면 부족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면 부족으로 인해 집중력 및 암기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1%나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고, 홍보 활동을 하여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기2>

1. 서론 ---㉠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실태
 - 다른 나라 청소년과 비교해본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시간 ---㉡
 -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 ---㉢
 - 청소년기 부족한 수면 시간의 문제점 ---㉣
3. 청소년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
4. 결론

8. <보기 1>에 주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소년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논거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점검한다.
- ②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청소년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 ③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청소년 수면 시간에 대한 기사의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이 예상 독자인 우리 반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논제 인지를 확인한다.
- ⑤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같은 비중으로 제시한다.

9.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활용하되,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② ㉡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여러 나라의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권장 수면 시간보다 부족한 점을 들어 청소년 수면 부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제시해야겠어.
- ③ ㉢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과도한 학습 부담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 ④ ㉣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수면 시간 부족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 ⑤ ㉤에서는 (가)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야겠어.

10. <보기 1>의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결론에 들어갈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 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의의를 밝힘.
- ②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촉구함.
- ③ 정부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 수면 시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함.
- ④ 청소년기에는 학업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회 풍토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함.
- 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통한 청소년 수면 시간 부족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제언함.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건이나 상태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표현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 된다. 따라서 겹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진다.

(나) ㉠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야.

㉡ 그는 아직도 우리가 돌아왔다는 걸 모르고 있어.

㉠과 ㉡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씩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전자는 홑문장과 홑문장이 이어진 겹문장이므로 이어진문장이라고 하고, 후자는 전체 문장이 홑문장을 안고 있는 겹문장이므로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안은문장 속에 안겨 있는 홑문장은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다) 이어진 문장은 홑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의미 관계가 대등한 두 홑문장이 이어진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앞 절과 뒤 절이 어떠한 의미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1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홑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지만, 겹문장에는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② 관형어, 부사어와 같은 수식 성분이 많아져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홑문장이 겹문장으로 바뀐다.
- ③ 겹문장의 범주 안에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이 있다.
- ④ 안긴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므로 다르게 표현하면 절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어진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는 기준은 이어진 문장 간의 독립성 여부이다.

12. 다음 중 이어진문장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소희는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 ②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 ③ 나는 비록 경기에 지더라도 울지 않을 것이다.
- ④ 우리가 마지막 기차를 타려면 지금 서둘러야 한다.
- ⑤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려고 텔레비전을 켜셨다.

13.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29항]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처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붙임 1] 'ㄹ'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음은 [ㄹ]로 발음한다.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으로 발음한다.

- ① 파생어 ‘맨입’은 접두사의 끝이 ‘ㄴ’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의 규정에 따라 [맨닙]으로 발음한다.
- ② 합성어 ‘물약’은 앞 단어의 끝이 ‘ㄹ’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야’이므로 ㉠과 ㉡의 규정에 따라 [물락]으로 발음한다.
- ③ ‘콧등’은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왔으므로 ㉢의 규정에 따라 [콧뚱]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④ ‘아랫니’는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되므로 ㉣의 규정에 따라 [아래니]로 발음한다.
- ⑤ ‘나뭇잎’은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결합되므로 ㉤의 규정에 따라 [나무닙]으로 발음한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다01 **㉠** 【…을】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땅을 고르다.

㉡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줄을 고르다.

고르다02 **㉢**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 같다. ㉢치아가 고르다.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숨결이 고르다.

다듬다 **㉤** 【…을】

㉤ 맵시를 내거나 고르게 손질하여 매만지다. ㉤머리를 다듬다.

㉥ 거친 바닥이나 거죽 따위를 고르고 곱게 하다. ㉥할아버지는 방망이를 다듬었다.

- ① ‘고르다01’과 ‘고르다02’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고르다01’과 ‘다듬다’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다.
- ③ ‘고르다01’과 ‘다듬다’는 같은 품사로 쓰인다.
- ④ ‘고르다02 ㉠’과 ‘다듬다 ㉤’은 유의 관계이다.
- ⑤ ‘고르다02 ㉡’의 용례로 ‘날씨가 고르지 않아 일정을 취소했다.’를 추가할 수 있다.

15.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스조(子思子) | 그르샤디 하늘히 명(命)흐신 거슬 날 온 성(性)이오 성(性)을 조차물 닐온 도(道) | 라 ㉡ 흐시니 하늬 불근 ㉢ 거슬 법바드며 성인사 법(法)을 조차 이편(篇)을 밍가라 히여곰 스승되니로써 ㉣ 그르칠 바를 알에ㅎ·며 ㉤ 데즈로써 비홀 바를 알에 흐노라.

- 『소학언해』, 선조 20년(1587) -

[현대어 풀이]

자사자가 말씀하시되 하늘이 명한 것을 이르되 성품이요, 성품을 좇음을 이르되 교훈이라 하시니, 하늘 밝은 것을 본받으며 성인의 법을 좇아 이 책을 지어, 하여금 스승된 이로 가르칠 바를 알게 하여 제자로서 배울 바를 알게 하노라.

- ① ㉠을 보니 현대 국어와는 달리 주격 조사 ‘ㅣ’가 쓰였군.
- ② ㉡을 보니 주체 높임을 위해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군.
- ③ ㉢을 보니 현대 국어와는 달리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④ ㉣을 보니 현대 국어와는 달리 모음 ‘·’가 쓰였군.
- ⑤ ㉤을 보니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구개음화가 나타났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개 사대부가 사는 곳은 인심이 고약하지 않은 곳이 없다. 당파를 만들어서 일 없는 자를 거두어들이고, 권세를 부려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기도 한다. 더 이상 자신의 행실을 단속하지 못하면서도 남이 자기를 논의하는 것을 미워하고, 한 지방의 패권(霸權)을 잡기를 좋아한다. 만 당파와는 같은 시골에 함께 살지 못하며, 사대부들이 사는 동리와 골목에는 서로 나무라고 혈뜬어서 뭐가 뭔지 측량할 수 없다.

대개 당색(黨色)이라는 것이 시초에는 매우 자질구레한 데에서 일어난 것이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논의를 지킨 지 2백 년을 지나면서 드디어 깨뜨릴 수 없는 굳은 당파로 굳어졌다. 노론과 소론은 서인으로부터 분열한 지가 겨우 40여 년이다. 이런 까닭에 간혹 형제, 숙질(叔姪) 간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자도 있다. 명색이 한번 갈라지면 심장이 초월(楚越) 같아서 같은 색목(色目) 끼리는 서로 의논하여도 가까운 형제, 친척 간에는 서로 말하지 않는다. 이에 이르러서는 윤리도 없어진 셈이다. 근래에는 사색(四色)이 조정에 함께 나아가서 오직 벼슬만 할 뿐이고, 각자 예로부터 지켜오던 의리는 모두 고깔 씌우듯 숨겨 버렸다. 글과 문장의 옳고 그름과, 국가의 충신과 역적에 대한 논란도 모두 지나간 자취로 돌려 버린다. 그리하여 성난 기운으로 피나게 싸우던 버릇은 전보다 비록 적어졌으나, 옛 습속에다 약하고 게으르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새로운 병통이 보태어졌다.

㉠ 그 마음은 진실로 다르면서 입에 올릴 때에는 모두 섞임 없는 한 빛이다. 매양 공적 좌석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이야기가 조정 일에 이르면, 서로 대답하는 말을 아니하고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문득 우스갯소리로 우물쭈물하여 깔아뭉개 버린다.

이런 까닭에 의관을 갖춘 자가 모인 자리에는 오직 당에 가득한 웃음소리만 들릴 뿐이고, 정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여, 실상 나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적다. 관직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관청을 술 마시는 주막같이 생각한다. 재상은 중용(中庸)을 지킴으로써 어질다 하고, 삼사(三司)는 말을 아니하는 것으로써 고상하다 하며, 외관(外官)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못난이라 하여,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

대저 개혁 이래로 천지간 여러 나라 중에 인심이 일그러지고 무너져서, 바로 본성을 잃었다는 것도, 지금의 당파로 인한 환란(患亂)과 같은 적이 없었다. 이를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한 모퉁이 탄환(彈丸)만한 나라가 비록 작다고 하지마는, 생민(生民)이 백만인데 장차 그 본성을 다 잃어서 구제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또한 슬픈 일이다.

이러므로 장차 그 시골에 살려고 하면, 인심의 좋고 좋

지 못함은 논할 것이 없고, 건조함과 비습(卑濕)한 것이 비록 알맞지 못하다 하더라도, 같은 색목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방문을 하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으며, 또한 문학을 닦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대부가 없는 곳을 가려서, 문을 닫고 교제를 끊고 홀로 자신을 착하게 하면 비록 농·공·상이 되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형편이니 인심의 좋고 좋지 못함은 논할 것도 못 된다.

16. 위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사대부가 사는 지역의 폐해
- ② 조정에서의 사대부들의 임무 방기
- ③ 사대부가 사는 곳을 피해야 하는 이유
- ④ 사대부들의 당파 싸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

17. <보기>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위 글을 쓴 의도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대부(士大夫)란 사부(士夫)와 대부(大夫)를 합친 말이다. 사부란 관직에 나아갈 준비를 하거나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하는, 벼슬길에 있지 않은 선비를 이르고, 대부란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관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비와 관료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관료였더라도 낙향하여 다시 선비가 되기도 하고, 선비가 세상에 나아가 관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① 때를 못 만나 낙향하려는 사부에게 사대부와 거리를 두기를 충고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새롭게 관직에 진출하려는 사부에게 사대부의 진정한 도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 ③ 관직에 있는 대부에게 사대부의 폐해를 들어 사대부의 길을 포기하기를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임명권자인 군주에게 본성을 잃은 사대부의 폐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음을 주청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선비에게 사부와 대부의 차이를 통해 어느 때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1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태의 원인과 그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이를 논증하고 있다.
- ③ 역설적 논리로써 진정한 사대부의 길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
- ④ 이상적인 사례와 대비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폐단이 온 나라에 걸쳐 심각함을 부각하고 있다.

19. <보기>의 내용 중 위 글에 나타난 사대부의 폐해와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평생직장으로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다. 그러다 보니 그 폐단 또한 만만치 않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그들은 (ㄱ)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에 주어진 업무만을 처리하는 보신주의를 최대의 미덕으로 여겼다. (ㄴ) 사회나 나라를 걱정하는 일은 뒷전이고 오직 눈앞에 주어진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ㄷ)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렴을 지키는 공무원을 무능한 인사로 간주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ㄹ) 또, 고위직에 있던 정치인이 자신의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기관의 장으로 천거되는 낙하산 인사도 비일비재했다. (ㅁ) 반면에 시민의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도 않은 채 방치해 두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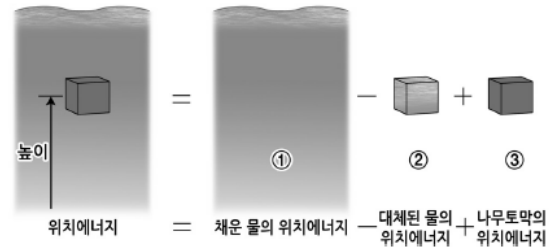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ㄹ) ⑤ (ㅁ)

20.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은?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 ② 감탄고토(甘呑苦吐)
- ③ 여리박빙(如履薄氷)
-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⑤ 좌고우면(左顧右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높은 곳에 떠받쳐져 가만히 있는 물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물체를 놓으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며 운동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운동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치에너지'라고 부른다. 위치에너지는 중력과 높이를 곱한 값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중력은 질량과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있을 때에도 위치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부피일 때 물보다 가벼운 나무토막이 물속에 있는 경우의 위치에너지는 위 그림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우선 나무토막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다음 나무토막이 대체해 들어갈 위치에 있는 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나무토막을 넣는 것이다. 따라서 물속에 나무토막이 있는 경우의 전체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text{위치에너지} = (\text{채운 물의 위치에너지}) + (\text{나무토막의 질량} - \text{대체된 물의 질량}) \times (\text{중력가속도}) \times (\text{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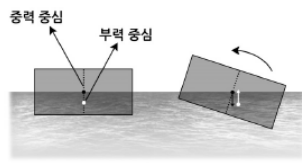
바닥에서 잦 나무토막의 높이에 따라 전체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나무토막은 같은 부피의 물보다 가벼워, (나무토막의 질량-대체된 물의 질량)은 음수가 되므로 나무토막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전체 위치에너지가 작아진다. 위치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변하면 물체는 힘을 받는데, 힘은 전체 위치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나무토막은 전체 위치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인 위로 힘을 받아 떠오른다. 이때 나무토막이 위로 힘을 받는다는 것은 아래로 향하는 중력보다 위로 미는 더 큰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힘이 바로 부력이다.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를 알려면 물속 나무토막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같아져서 나무토막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경우를 찾으면 된다. 힘을 받지 않으려면 위치에너지가 높이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위의 식에서 채운 물의 위치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나무토막의

질량과 대체된 물의 질량이 같을 때이다. 따라서 부력은 나무토막 질량에 중력가속도를 곱하거나 대체된 물 질량에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나무토막이 육면체인 것처럼, 물체는 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중력은 공간에 분포된 물체의 모든 지점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이 중력들을 다 더하면 중력 전체가 마치 한 위치에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가상의 점이 있는데, 이를 중력 중심이라고 부른다. 중력 중심이 물체의 아래에 있을 때 안정한 상태가 된다. 부력도 중력과 마찬가지로 부력 중심이 있어, 부력 전체가 이 위치에 작용하는 것처럼 된다.

물에 떠 있는 물체가 기울었다고 가정해 보자. 물체가 기울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을 받으면 원상태로 돌아오지만 기울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더 기울다. 이와 같이 기울은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을 받느냐에 따라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를 말하는 안정성이 달라진다. 이 회전하는 힘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중력 중심과 부력 중심의 상대적인 위치다.



가로 폭이 더 긴 나무토막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고 가정해 보자. 나무토막 안에서 중력 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물에 잠긴 부분으로 계산한 부력 중심은 나무토막이 기울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에 기울은 오른쪽은 위로 미는 부력에 의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반대쪽인 왼쪽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일종의 ㉠ 복원력이 생기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속 나무토막의 위치가 높을수록 전체 위치에너지는 커진다.
- ② 중력에 의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운동에너지가 발생한다.
- ③ 위치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이다.
- ④ 중력 중심은 중력 전체가 물체의 한 위치에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가상의 점이다.
- ⑤ 나무토막이 위로 힘을 받는다는 것은 나무토막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부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높이에 있는 두 개의 물체 중 질량이 적게 나가는 것이 위치에너지가 더 크다.
- ② 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 사과의 위치에너지는 작아진다.
- ③ 같은 부피일 때 물보다 무거운 돌맹이는 물로 채워진 수조에서 높은 곳에 있을수록 수조 전체의 위치에너지는 커진다.
- ④ 물속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큰 경우에는 위치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인 위로 힘을 받는다.
- ⑤ 같은 부피일 때 물과 질량이 동일한 물체를 물로 채워진 수조에 넣는다면 높이가 달라져도 수조 전체의 위치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23.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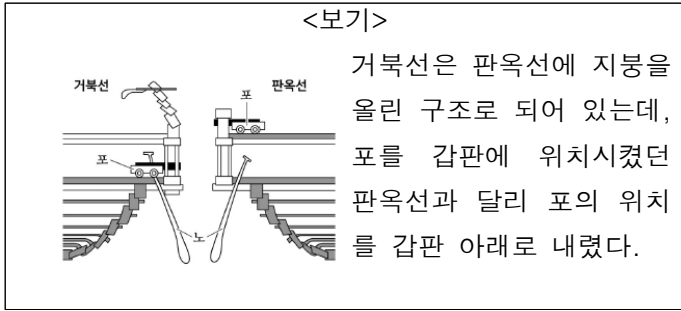
<보기>



㉠ 나무토막이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나무토막은 ㉡ 물 위에 나온 부분과 ㉢ 물에 잠긴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나무토막은 물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물 위로도 올라가지 않는다.

- ① ㉠일 때 중력과 부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한다.
- ② ㉠일 때 나무토막 전체의 질량과 물에 잠긴 부분과 같은 부피의 물의 질량은 같다.
- ③ ㉠은 나무토막을 들어 올리거나 물속으로 밀어 넣을 때보다 전체 위치에너지가 큰 상태이다.
- ④ 나무토막을 들어 ㉡의 부피가 더 커진다면 중력은 그대로이지만 부력은 작아진다.
- ⑤ 나무토막을 물속으로 밀어 넣으면 ㉢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나무토막은 위로 힘을 받게 된다.

24. ㉗와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판옥선에 지붕을 올린 것은 배의 복원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군.
- ② 거북선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옥선보다 배의 가로 폭을 줄여야겠군.
- ③ 거북선의 복원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배가 기울어진 쪽에는 중력이, 반대 방향에는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해야겠군.
- ④ 판옥선과 달리 거북선이 포의 위치를 갑판 아래로 내린 것은 배의 중력 중심을 낮춰 복원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⑤ 거북선의 경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갑판 아래에 있는 포로 인해 배의 부력 중심은 배가 균형을 잡고 있을 때보다 위로 이동하여 복원력이 생기겠군.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기술은 그 내부적인 발전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술(혹은 인공물)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통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술의 발전 경로는 이전의 인공물보다 '기술적으로 보다 우수한' 인공물들이 차례차례 등장하는, 인공물들의 연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경로가 '단일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는 인공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설계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종합하면 기술의 발전은 결코 사회적인 힘이 ㉘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단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의 발전 경로를 열심히 추적해 가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인공물을 만들어 낼 때, 그것이 특정한 형태가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엔지니어, 자본가, 소비자, 은행, 정부 등의 이해관계나 가치체계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기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미 그 속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기술이 서로 경쟁하여 그 중 하나가 사회에서 주도권을 ㉙ 잡는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적 우수성이나 사회적 유용성이 아닌,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현재에 이르는 기술 발전의 궤적은 결코 필연적이고 단일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통념은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를 넘어 그것이 사회의 형태와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견해로까지 ㉚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동력 기술이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주장, 새로운 정보 기술이 과거의 산업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낳는다는 주장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적 관계와 행동 양식이 바뀌어 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과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로 ㉛ 여기는 사고가 놓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은 결코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인 영향력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다. 물론 특정한 기술의 발전 궤적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 핵 발전 기술처럼 이미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㉜ 자리잡은 거대 기술 시스템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 실체로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지적은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이 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율적인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기술시스템을 지탱하는 요소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이해관계의 총체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25. 위의 글이 수업을 위한 원고의 일부라고 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수업의 개요와 목표 : 현대 사회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통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인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실천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모색한다.

- ① 과학 기술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과학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과학 기술은 과학과 기술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 ④ 과학 기술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 ⑤ 과학 기술은 사회 현실과 독립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6. (가)와 (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견해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실체로 여긴다는 점
- ② 기술 발전이 사회 변화의 동력임을 강조한다는 점
- ③ 기술 발전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 ④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
- 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사회 발전 속도와 비례한다고 본다는 점

27.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거가 되는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연구 자료를 조사한다.
- ② 사회 변화에 따라 가치 체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다.
- ③ 기술 개발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나 가치가 작용한 실제 사례를 조사한다.
- ④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통념에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를 분석한다.
- ⑤ 글쓴이가 통념을 종합하여 이끌어낸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8. '거대 기술시스템'을 검색하여 <보기>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안은?

<보기>

[A] 미국의 기술사가인 토마스 휴즈가 사용한 용어로, 이 말에는 기술을 기계와 같은 인공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까지 합쳐진, 일종의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B] 전기 시스템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회사, 각종의 전기 기기들을 생산해내는 가전 업체,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회사,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장 등 여러 하위 시스템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인다.

[C] 시스템들 간의 상호 연관을 특징으로 하는 거대 기술시스템은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나 삶의 양식, 노동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① [A] : 기술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의 총체임을 주장하는 논거로 활용한다.
- ② [B] : 기술이 자율적 실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활용한다.
- ③ [C] :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 ④ [A], [C] :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독자적 실체로서 사회를 결정할 수는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B], [C] : 기술이 부분적으로 사회를 결정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9. ㉠ ~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 ① ㉠ 저지(沮止)할 ② ㉡ 장악(掌握)하는
- ③ ㉢ 심화(深化)되는 ④ ㉣ 간주(看做)하는
- ⑤ ㉤ 정착(定着)된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 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2
얼굴에 별 자국이 숨숨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찢다는 별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모 고모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열여섯에 사십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된 포죽죽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젓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모 고모의 딸 승녀 아들 승동이
㉠ 육십 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 끝에 쉽게 눈물을 찢 때가 많은 큰골 고모 고모의 딸 홍녀(洪女) 아들 흥동이 작은 흥동이
배나무 접을 잘 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삼촌엄매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3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 옷의 내음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기떡 콩가루떡의 내음새도 나고 ㉡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대와 고사리와 도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4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옆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랫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윗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싹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 이렇게 화대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돌우고 흥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러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시누이 동세들이 육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셋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계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 백석, <여우난 굶죽>

(나)
바람이 거센 밤이면
㉣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궤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哭)을 했다.

- 이용악, <다리 위에서>

(다) 백석은 <여우난 굶죽>을 통해 보잘것없고 소박한 인물들을 내세우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었던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유년기 화자의 순진무구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하여 인위적인 시적 형식은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명절날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체험을 순차적으로 그려내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작가가 경험했던 토속적이고 풍요로웠던 공동체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은 이 시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에 묘사된 ‘여우난골’은 명절을 맞아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장소로서, 공동체적 합일의 공간을 상징한다. 이 시가 쓰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탈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시인은 ‘여우난골’이라는 어린 시절의 공동체적 공간을 제시하면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중한 풍속과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었고, 이는 당시 우리 민족에게 위안을 주고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3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공간적 이동 상황이 시상 유발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와 대상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면서 시적 상황을 확장하고 있다.
 - ⑤ 명사로 시행을 끝맺으며 인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긍정하고 있다.

31.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군.
- ② ㉡ : 유사한 감각적 이미지의 사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냉혹한 현실마저도 긍정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드러내는군.
- ③ ㉢ : 행위나 현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간의 경과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④ ㉣ :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행위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유년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환기하고 있군.
- ⑤ ㉤ : 의도적인 시행 배치를 통해 특정한 시간적 배경이 지니는 의미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군.

32. (다)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문적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서술하여 유년기 화자의 특징을 잘 드러내려 하였군.
- ② ‘명절날’, ‘큰집’이라는 시공간적 배경 설정은 가족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로군.
- ③ ‘2’에서는 ‘얼굴에 별 자국’, ‘홀아비의 후처’와 같이 가족 공동체에서 포용되지 못한 특징까지 드러내면서 회한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군.
- ④ ‘3’과 ‘4’에서 ‘내음새’를 반복함으로써 풍요로운 가족 공동체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 ⑤ 방언과 토속적 소재를 사용하여 작가 자신이 체험했던 삶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병부 상서 화욱에게는 세 부인 심씨, 요씨, 정씨가 있었다. 이 중 요씨는 딸 빙선을 낳고 일찍 죽고, 화욱은 심씨 소생의 장남 춘이 용렬하다 하여 정씨 소생의 아들 진을 편애하여 심씨와 춘의 원망을 산다. 간신 엄송이 득세하자 화욱은 사직하고 낙향한 뒤, 춘을 정숙한 성품의 임 소저와 혼인시키고, 진의 배필로 윤 소저와 남 소저를, 빙선의 신랑으로 유 공자를 정해 놓고 죽는다. 화욱이 죽자 누님인 성 부인의 도움으로 진과 빙선은 각각 성례하고, 심씨는 진의 부인인 윤 부인과 남 부인을 미워한다. 춘은 방탕해져서 자신의 아내마저 내쫓고 간사한 조씨를 정실로 삼는다.

㉠ 하루는 조씨가 난향을 시켜서 쌀죽 한 그릇을 남 부인에게 보내왔다. 그리고 심씨의 말로 전하여 말했다.
“다시는 안채로 들어오지 못할 줄은 너도 잘 알 테니 스스로 빨리 끝내거라.”

부인은 죽 색깔이 푸르스름하면서 노란 것을 보고 탄식했다.

“구차하게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 거야.”

부인은 드디어 그릇을 들고 모두 마셨다. 난향이 돌아가서 남 부인의 죽음을 조씨에게 고하자, 조씨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난향과 함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급히 멍석으로 말았다. 그리고 비밀리에 심복 노비 막충에게 금화 백 냥을 주고 맡겼다.

“너는 이 멍석을 지고 가서 강물에 던지고 와라. 각별히 입조심해야 한다.”

막충은 멍석을 지고 정원 북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나갔다. 밤은 이미 삼경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수백 걸음을 갔을 때쯤이었다. 막충은 갑자기 정신이 어질어질하면서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눈, 코, 입, 귀 등이 모두 꽉 막힌 듯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다. 한편, ㉡ 이전에 청원 스님이 ㉢ [꿈] 을 꾸었는데, 관음보살이 나타나 단약 세 개를 주면서 말했다.

“몇 월 며칠에 남 부인 채봉이 제 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너는 ㉣ 그날 밤 사경 즈음 소흥으로 가서 보림산 남쪽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하여라.”

㉤ 다음 날 청원은 짧은 가사 장삼을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는 서촉을 발하여 보림산 명주암에 이르렀다. 이곳은 곧 화씨 집안의 북쪽 정원 바깥쪽이었다. 때마침 윤 부인과 남 부인의 몸종들이 암자에 숨어 있으면서 각각 그 주인아씨를 그리워하며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청원은 이를 알고도 굳이 묻지 않았다.

㉥ 어느 날 밤중에 청원이 계앵과 쌍섬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주인아씨가 아주 위험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구할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고는 즉시 마을 입구를 향하여 나갔다. 계앵 등은 크게 의심했지만, 일단 따라가 보았다. 청원은 남쪽 기슭의 두 그루 소나무 아래에서 멈추더니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이곳입니다.”

홀연 키 큰 사내 하나가 등에 커다란 멍석을 메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길에다 짐을 버려 놓고는 바위에 기댄 채 잠이 드는 것이었다.

청원이 나아가 멍석을 잡고 계앵 등을 시켜 안아서 들게 했는데, 계앵 등은 심장이 놀라고 다리가 후들거려 들지 못했다. 청원이 꿀꿀 혀를 차며 말했다.

“이때를 놓치면 구할 수 없으니 빨리 들어요.”

계영 등은 그 말을 듣고야 비로소 주인아씨인 것을 알고 놀라 소리 지르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청원이 급히 이를 말리며 스스로 멍석을 들고 암자로 돌아왔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멍석을 펼치고 보았더니, 부인의 낯빛은 변하지 않았고 가슴에 약간의 온기도 남아 있었다. 청원이 크게 기뻐하며 주머니에서 환약 세 개를 꺼내 먼저 한 개를 따뜻한 물에 타서 입에 흘려보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면서 손목의 맥도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계영 등 십여 명이 안절부절못하며 모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청원이 또 환약 한 개를 개어서 입에 흘려 넣었다. 마침내 부인이 눈을 뜨고 길게 숨을 내쉬더니 몸을 번드쳐 돌아눕고는 독물을 토해냈다. 시퍼런 피가 바닥에 가득했다. 또 한 개를 타서 가져가니 이번에는 부인이 스스로 마셨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사지가 가벼워져서 일어나 앉아 청원에게 말했다.

“스님은 뉘시운데 죽은 목숨을 살리셨습니까?”

청원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 제 얼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부인이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혹시 일곱 해 전 관음 화상을 그려 달라고 하시던 청원 스님이 아니신지요?”

<중략>

부인이 탄식하면서 동정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내가 그때 부모님을 따라 죽지 못하고 모질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불효를 하늘이 꽤 씩히 여겨 오늘날 이 같은 재앙을 내리셨나 봅니다. 복 없는 사람이 차라리 죽으면 걱정을 잊을 텐데, 스님께서는 쓸데없이 자비를 드리워서, 죽어야 행복할 사람이 이 괴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도록 하셨네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입니다.”

청원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 이런 말은 하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성인들 중에 액운을 만나지 않고 도를 터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께서 설산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나 공자께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져 곤경을 겪으신 것이 그러합니다. 부인처럼 세상에 뛰어난 자질을 갖추신 분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특별히 심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세상은 부인이 있는 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부인을 격발하여 덕이 천하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재앙과 복록은 다 때가 있고 영화도 치욕도 모두 부질없음을 알았던 옛사람들은, ㉠ 세상의 바람과 서리를 질리도록 경험하고도 그 마음이 더욱 씩씩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위에 홀로 있는 오동나무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눈서리가 내리고 더운 바람이 불어도 그 가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안으로 고통을 참아 냈기에 잘라서 비파를 만들면 금석도 그 소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맹

자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을 놀라게 하여 성품을 굳게 한다.’는 것은 남자뿐 아니라 부인들에게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음보살이 꿈에 나타나 지시한 것을 알려 주며 말했다.

“부인을 보니 몇몇의 액운이 더 남아 있고 또한 저희 불가와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촉 땅으로 가서 관음보살에게 의지하며 서너 해를 보내게 되면 복록이 저절로 이를 것이고 재앙이 영원히 멈출 것입니다.”

남 부인은 큰 한숨만 내쉬면서 험사리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관음보살이 다시 부인의 ㉡ 꿈에 나타났는데, 하는 말이 청원이 한 말과 같았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3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원과 남 부인은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 ② 남 부인은 조씨의 음모를 알면서도 스스로 쌀죽을 마셨다.
- ③ 남 부인은 청원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것을 원망하고 있다.
- ④ 계영과 쌍섬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명주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⑤ 청원은 남 부인이 잠시 속세를 떠나 불가에 의지하기를 권하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사건은 ㉡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발생한다.
- ② ㉠~㉢ 중 ㉢은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이후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과 ㉡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과 ㉡ 사이보다 짧다.
- ④ ㉠, ㉡, ㉢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⑤ ㉡은 ㉢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한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꿈은 대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등장인물에게 각성 및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둘째, 인물의 욕망과 소망,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셋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한다. 넷째, 주인공이 위기, 곤경의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다섯째, 상대를 설득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 ① ㉠에서 관음보살이 남 부인의 미래를 알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은 앞날의 사건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한다.
- ② ㉠에서 관음보살이 준 단약 세 개가 죽을 위기의 남 부인을 살렸다는 점에서, ㉠은 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③ ㉡를 통해 남 부인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청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면, ㉡는 등장인물에게 각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 ④ ㉡에서 관음보살이 나타나 청원이 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남 부인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 ⑤ ㉠과 ㉡ 모두에서 관음보살이 남 부인을 돕는다는 점에서, ㉠과 ㉡는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현실 세계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36.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②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③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한다.
- ④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 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잎 몇 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벌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내려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 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 산은 올라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나)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 온 나에게
 숙리산은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 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숙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
- 나희덕, <숙리산에서>

(다)
 무정(無情)히 서 있는 바위 유정(有情)하여 보이나다.
 영특한 우리들도 직립불의(直立不倚)¹⁾ 어렵거늘
 만고(萬古)에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나다.
 <제1수>
 조용히 다시 묻자 너 난 지 몇 천 년인고.
 네 나인 필연 많고 내 나인 적건마는
 이제는 너와 나와는 함께 늙자 하노라.
 <제9수>
 계구대(戒懼臺)²⁾ 올라오니 문득 절로 아찔하다.
 대(臺) 위에서 살펴보니 이같이 두렵거든
 못 보고 못 듣는 땅이야 아니 삼가 어찌하리.
 <제13수>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벼웃에 막대 짚고
 방수심산((訪水尋山)³⁾하여 피세대(避世臺)²⁾에 들어오니
 어즈버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여기런가 하노라.
 <제17수>
 격진령(隔塵嶺)²⁾ 하 높으니 홍진(紅塵)이 멀어 간다.
 가뜩이 먹은 귀 씻을수록 먹어 가니
 산 밖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듣도 보도 못하도다.
 <제28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
 [어휘 풀이] 1) 직립불의 : 의지하지 않고 꼳꼳하게 바로
 섬. 2) 계구대, 피세대, 격진령 : 경북 포항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들. 3) 방수심산 : 물과 산을 찾아다님.

37.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이 시상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자연물의 변화 과정이 삶의 모습으로 치환되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창작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속성이 인간의 삶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38. (가)와 (다)의 시어 및 시구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개밥바라기 별'과 (다)의 '명리(名利)'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② (가)의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과 (다)의 '몇 천 년'은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간 개념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 ③ (가)의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와 (다)의 '직립 불의(直立不倚)'는 화자가 처한 시련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④ (가)의 '몇 번 머리를 흔들고'와 (다)의 '듣도 보도

못하도다'에는 화자가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고뇌가 담겨 있다.
 ⑤ (가)의 '천불산(千佛山)'과 (다)의 '계구대(戒懼臺)'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9.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대상을 구체화시켜 형상화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천양희의 「마음의 수수밭」에서도 시적 화자는 추상적인 대상인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인 이미지를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 : '저녁만큼 저문 것'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 표현으로, 화자의 마음이 어두운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 '올려다보아야'가 나타내는 상황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화자는 이전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③ ㉢ : '내 막막함'도 올라가게 하는 '솔바람'은, 화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방해함으로써 일시적인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④ ㉣ : '내 속의 목탁새들'은 화자의 내면에서 '우짚는'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화자를 깨우치는 내면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⑤ ㉤ :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고려할 때, 화자는 어두운 심적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보기>는 (나)와 관련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등산(登山)’이라는 말에는 산을 높이의 상징으로 설정하여 정복하겠다는 욕구가 숨어 있다. 이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 즉 경쟁을 통해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통한다. 이와 달리, 산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입산(入山)’이라는 말에는 등산의 수직성 대신에 수평성이 담겨 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속세[俗]를 떠난[離] 산(山)’이라는 뜻을 지닌 속리산(俗離山)에서, 일상적 삶을 돌아보면서 세속의 습관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면모를 보인다.

- ① ‘가파른 비탈만이 /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 온’ 것은 세속의 습관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②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는 산을 정복하겠다는 욕구로 인해 입산(入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조바심 내는 것이겠군.
- ③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서는 경쟁을 통해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화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 ④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 그 하루하루가 /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는 일상적 삶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이겠군.
- ⑤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에서는 입산(入山)의 수평성이 지닌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군.

41.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다)와 달리 시어의 반복을 통해 전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다)와 달리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다.
- ③ (다)는 (나)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42. (다)의 각 수에 드러난 화자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 : 변함없이 곧게 서 있는 바위의 속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② 제9수 : 생겨난 지 오래된 바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제13수 :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제17수 :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구체적인 행장 및 행동과 연결시키고 있다.
- ⑤ 제28수 : 귀가 먹어 가는 원인을 속세의 부정적인 요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이 바닥에선 먹고 사는 일만 힘든 문제가 아니라 먹은 걸 배설하는 일도 역시 난문제 중의 하나라고, 진작부터 아버지는 말한 바가 있다. 그때만 해도 그 아버지에게선 다소간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아침마다 공동변소 앞에서 줄을 설지언정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이 어찌 배설의 그것만 하랴.

이사를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실상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막상 닥치고 본즉, 입에 풀칠을 하는 일처럼 어려운 문제가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반평생을 넘어 불혹의 나이를 살아오는 동안 당신이 의지해 온 것이라곤 오직 몇 마지기의 땅땸기밖엔 없었다. 흠은 그래도 정직한 상대였다. 못지않게 정직한 아버지의 손을 거의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앞에 놓인 상대는 결코 함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 정직한 만큼 아버지는 무능했다.

그만하면 가진 돈도 바닥날 때가 되었을 법하다고 느낄 무렵, 아버지는 몇 가지 도구들을 떠메고 들어왔다. ㉢ 하나는 풀빵을 구워 내는 빵틀이었고, 다른 하나는 냉차항아리였다. 뒤엣것은 나로서도 길거리에서 흔히 보아 온 물건이었지만, 앞의 빵틀은 난생 처음 대해 보는 도구였다. 그것은 24개의 구멍이 가로세로 질서정연하게 패어져 있는 무쇠판이었다.

흔한 냉수 한 사발도 공짜가 없는 게 도시의 삶이었다. 제자리에서 잠시 돌아누워도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 무위도식을 하며 산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이 터득한 지식이란 도시생활의 그 냉엄한 질서였다. 아무 일에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무슨 생각, 어떤 타산에서 마침내 그런 결단에 이르게 되었던가 하는 점은 어차피 문제 밖의 일이었다. 어쨌건 이 일은 아버지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투자임이 분명했다.

무슨 요술단지라도 구경하듯 신기해하는 식구들을 둘러보며 그러나 아버지는 호기 있게 말했다.

“자, 우리도 내일부터는 길거리로 나서는 거다. 그래 가지고 이놈의 빵틀로 마구 돈을 찍어 내는 거야. 암!”

아버지의 그 우직한 낙관론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못지않게 우리의 기대 또한 컸다. 감히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 설레게 소망했다. 그것이 단순한 빵틀이기를 넘어서 한꺼번에 스물넉 장의 지폐를 찍어 내는 기계일 것을…….

다음날 우리 가족은 한길로 진출했다. 번잡한 대로의 한 귀퉁이를 무단점거한 우리는 사과괘짝 위에도 문제의 빵틀을 걸었다. 그러고는 탄불을 피우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팔소(앙꼬)를 내왔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① 흠을 만져 오던 손은 어설피고 투박했다. 아버지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키들거리며 웃어 댔는데 결국 그 웃음이 쑥스럽고 거북한 감정을 많이 덜어 주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첫 완제품을 만들어 낸 것은 한낮이 되어서였다. 아버지가 조금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중의 한 개를 꺼내 들었을 때, 우리는 때맞추어 도시의 하늘을 무겁게 휘저으며 울려 퍼지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중략)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장마가 시작되었다. 좁은 골목들은 금세 수렁을 이루었다. 지렁이가 방 안까지 구물구물 기어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세상이 온통 젖어 있었다. 벽이 젖고, 천장이 젖고, 초석자리 깔린 방바닥과 그 위의 세간살이들이 흠뻑 젖어 있었다. 루핑 지붕은 삭은 못자리마다 빗물을 들게 했다. 빈 깡통과 세면기와 요강속으로 똑똑 듣는 빗방울 소리가 녹슨 실로폰 음향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낮이 되도록 우리는 누워 있곤 했다. 부지런을 피워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맑은 날에도 우리의 벌이는 신통칠 못했다. 풀빵은 역시 뒷맛이 썼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 원인을 규명해 내지 못한 처지였고, 그래서 매상도 기대 이하였다.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 스스로의 입뿐이었다. 저녁은 으레 풀빵으로 때웠다. 만찬 기분은 물론 아니었다. 첫날의 그 허전하고 거북스러운 느낌도 없었다. 밀가루와 이스트와 식용 소다와 사카린의 합성인 그 씹쓸하고 달착지근한 뒷맛만 메스껍게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아버지의 벌이 역시 시원칠 못했다. 때로는 얼

음값을 충당하기조차 황송할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반나마 차 있는 냉차 항아리를 집 앞의 하수구에도다 쏟아붓곤 했다. 그러면 향시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수챗물이 오렌지빛으로 곱게 착색되면서 거기 희석돼 있는 향료 냄새가 저녁 내내 골목 안을 떠돌았다. 아버지는 풀빵의 뒷맛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그 향료 냄새만은 몹시 언짢아 하시었다. 우리 저녁 식탁에는 두 번 다시 그것을 올리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데다가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판이었다. 딸딸이를 끌고 길거리로 나가 보았자 결과는 뻔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거의 온종일 께짝 같은 방에 갇혀 지냈다. 녹녹한 흠이불 자락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채 흡사 누에처럼 드러누워 있노라면 루핑 지붕과 판자벽을 때리는 빗소리가 것처럼 선연하게 의식될 수가 없었다. 삼라만상을 후줄근히 적신 비는 마침내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흠뻑 적셔 놓고 말아, 우리는 허기가 몰아오는 가벼운 현기증과 명징한 의식으로 땅 위에 가득히 차오르는 빗소리를 즐기는 것이었다.

드물게도 아버지가 노래를 흥얼대는 경우란 이런 때였다. 물론 목청을 돋우어 부르지는 않았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흥얼거림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낮고 탁한 비음을 통해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몇 소절의 가락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 단순하고 굴곡 없는 가락을 오래도록, 그리고 한동안씩 뜸을 들였다가 몇 번이고 되풀이해 흥얼댔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두런두런 얘기라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이처럼 하염없이 흥얼대고 있는 그 노래는 내게도 너무나 귀 익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랬다. ② 아버지는 분명, 모내기 노래를 흥얼대고 있었던 것이다.

- 이동하, <장난감 도시>

43.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이 진행되면서 서술자를 바꾸어 가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에 입각하여 사건 및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이나 그것과 관련된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서술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세 편의 중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난감 도시'(1982년 출간)의 시대적 배경은 1955년 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생인 한 소년 가족과 함께 농촌인 고향을 떠나 서울 번두리 판자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담고 있다. 소년이 도시에서 목격한 것은 농촌과는 다른 문화와 환경, 농촌과 다른 도시적 삶의 방식, 가치관이 다른 세계, 그리고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좌절이었다.

- ① ㉠ : 농촌과는 다른 문화나 환경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 ② ㉡ : '아버지'가 농촌에서 지냈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도시적인 것과 맞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 ③ ㉢ : 농촌적 삶의 방식과 도시적 삶의 방식을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사물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 농촌적 삶에서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던 '아버지'의 지식이나 기술이 도시적 삶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⑤ ㉤ : 도시적인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아버지'가 농촌적인 삶에 대해서 짙은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5. '나'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음에는 갈등을 빚지만 나중엔 아버지를 이해한다.
- ② 아버지의 처지나 심리를 이해하며 연민의 정을 느낀다.
- ③ 자신의 일에 충실한 채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 ④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하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 ⑤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갈등을 빚는다.

정답 및 해설

1	⑤	2	③	3	①	4	④	5	①
6	①	7	④	8	⑤	9	②	10	③
11	②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④	20	①
21	①	22	①	23	③	24	④	25	②
26	①	27	①	28	⑤	29	③	30	①
31	②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①	37	①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⑤	43	④	44	③	45	②

1.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첫 번째 발화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토의를 하게 되었다는 토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발언자를 정해주고 순서 대로 발언하도록 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화에서 토의 참여자 의견들을 정리하여 말해 주고 있다.
- ④ 첫 번째 발화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토의 참여자들의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하고 있다.

2. ‘청중 1’은 ‘정 박사’의 의견에 대해 ‘출산비 지원,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모든 문제가 돈에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 박사’의 의견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의 원인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에서, 해결 방안은 ‘정부는 출산 및 양육비용을 지원해주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또 다른 측면에서의 원인은 ‘과거와는 다른 젊은이들의 의식도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에서, 해결 방안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 있다.

- ④ ‘네,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겠네요.’에서 ‘청중 1’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 2’는 자신 주변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사례를 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의 생각이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김 교수’의 생각을 인정하고 있다.

3. ‘김 교수’는 요즘 젊은이들의 우리’보다는 ‘나’를 중시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각이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독신 형태의 삶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청중 2’가 독신 인구와 출산율이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독신 인구의 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 독신 인구가 줄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 ② ‘김 교수’는 독신 형태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출산율이 낮아진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독신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재정적’이라는 내용은 ‘김 교수’의 발언에서 찾을 수 없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정 박사’이다.
- ④ ‘김 교수’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중 2’과 질문한 독신 인구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대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⑤ ‘김 교수’는 우리’보다는 ‘나’를 중시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이 독신 형태의 삶을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독신 인구 중에는 자신의 편리함보다는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 대화에서 강 박사는 대형 마트 영업 규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고 있지 않다. [오] ① 사회자의 넷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회자의 셋째, 다섯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③ 강 박사의 둘째, 셋째, 넷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강 박사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인터뷰는 목적과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적 담화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방송 인터뷰인 A는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지는 사적 담화인 B에 비해 특정한 대화 목적을 미리 설정하고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자는 인터뷰를 시작하는 첫째 발언에서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대화의 목적을 한정하고 있다.

6. ㉠은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규제하기 위해'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③ : 문맥상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의 '작다'의 활용형이 아닌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적다'의 활용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⑤ : 해당 내용은 소비자 선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7. 조건에 따라 '전통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표현에 '강 박사'의 입장과 비유적 표현(길)이 사용되었다.

8. 논설문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반박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같은 비중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부각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논설문의 논거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논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논설문은 설의법이나 비유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므로,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신문 기사에서 언급한 논지를 보완하여 자신의 논지를 내세우는 글쓰기 상황이므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하는 자료 역시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논설문의 논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므로, 논설문의 논제로 선택한 '청소년 수면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반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다.

9. (나) 자료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이 권고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적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나)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작문 상황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 시간 부족을 논제로 택하여 글을 쓰는 상황이므로, (나)를 통해 다른 나라 청소년의 수면 시간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신문 기사에서는 청소년 수면 시간 부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서론에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수업과 지나치게 많은 과제 수행, 시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학습 부담이 청소년 수면 부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는 수면 부족이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지나친 학습 부담과 청소년 개인의 생활 습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 (다)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학습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보기 1>에서는 청소년 수면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청소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 2>의 결론 부분에는 사회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적절하다. ㉠ ① 청소년 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의의는 <보기 1>의 작문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②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촉구는 신문 기사의 논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글쓴이의 논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소년기에는 학업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회 풍토 조성은 신문 기사에서 언급한 청소년 개인의 생활 태도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포함하지 못한다. 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청소년이 학업 부담으로 인하여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청소년 생활 태도의 개선이나 정부의 노력으로 수면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11. 관형어와 부사어 등의 부속 성분이 문장에서 많아진다고 해서 홀문장이 겹문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기준은 '주어 +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다.

12. ②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로 두 문장을 연결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3. '아랫니'는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되므로 ㉔의 규정에 따라 [아랜니]로 발음해야 한다. ㉔ ② '물약'은 앞 단어의 끝이 'ㄹ'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야'이므로 제29항 ㉔에 따라 [물낙]으로 발음되고, ㉔의 규정에 따라 다시 [물락]으로 발음된다. ③ '콧등'은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왔으므로 제30항 ㉔의 규정에 따라 [코똥]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콘똥]으로 발음해도 된다.

14. '고르다02'의 ㉔은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의 의미를 지니며 '다듬다 ㉔'은 '거친 바닥이나 거죽 따위를 고르고 곱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다. 따라서 둘을 유의 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㉔ ① '고르다01'과 '고르다02'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 관계이다. ② '고르다01'과 '다듬다'는 모두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고르다01'과 '다듬다'는 모두 동사로서 품사가 같다. ⑤ '날씨가 고르다'는 '날씨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의 의미를 지닌다.

15. '데즈'는 '제자'와 달리 아직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㉔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㉔ ① ㉔에 사용된 'ㅣ'는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에 해당한다. ② ㉔은 'ㅎ다'의 어간 'ㅎ-'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연결 어미 '-니'가 결합한 것이다. ③ ㉔은 현대 국어(것을)와 달리 체언 '것'에 조사 '을'이 붙을 때 이어적기를 하였다.

16. 이 글에는 사대부들의 당파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사대부의 도리를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대부이기를 포기하고 사대부가 살지 않는 고장을 찾기를 권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사대부가 사는 지역의 피해를 알 수 있다.
- ② 두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문단에 걸쳐 사대부들의 임무 방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③ 같은 골목에 살고 있는 사대부일지라도 다른 당파일 경우 서로 헐뜯고 나무라는 것이 현실이기에 사대부가 모여 살면 인심이 사나워지기 때문이다.
- ⑤ 사색당파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 실시 이후에 사대부들이 국사를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웃음소리로 무마하거나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침묵을 고수하는 등의 새로운 폐단이 진행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17. 이 글은 때를 못 만나 낙향하려는 사대부에게 살기 좋은 곳을 일러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글쓴이는 살기 좋은 곳을 논하면서 오히려 사대부가 모여 살지 않는 곳에서 살기를 권한다. 사대부가 어지러운 더러운 세상을 피해 세상과 교류를 끊거나 사대부이기를 포기하고 농·공·상이 되는 길만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18. 이 글은 당파 싸움의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당파 싸움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두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당파 싸움은 원래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대립이 굳어진 것이라고 그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글의 처음에 “대개 사대부가 사는 곳은 인심이 고약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입증하고 있다.
- ③ 글쓴이 자신이 사대부이면서 사대부이기를 포기하는 데서 진정한 사대부의 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역설로써 깨우치고 있다. 또 인심 좋은 고장을 찾아 낙향하는 사대부에게 오히려 사대부가 살지 않는 고장을 권하는 것도 역설적 논리로 볼 수 있다.
- ⑤ 여러 관직에 있는 사대부들이 이해관계에 의해 본성을 잃게 되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온 백성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폐단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19. 이 글에는 고위직에 있던 정치인이 물러날 경우 전의 직책과는 관계가 없는 단체의 장으로 천거하는 사대부의 폐단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두 번째 문단의 “근래에는 사색(四色)이 조정에 함께 나아가 ~ 지나간 자취로 돌려 버린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폐단이다.
- ② 네 번째 문단의 “정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여, 실상 나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네 번째 문단의 “외관(外官)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못난이라 하여”라는 부분에서 드러나는 내용이다.
- ⑤ 세 번째 문단의 “매양 공적 좌석에 많은 사람이 ~ 우물쭈물하여 갈아몽개 버린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0. ㉠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로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구밀복검(口蜜腹劍) 혹은 표리부동(表裏不同)과 통하는 말이다.

오답풀이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로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21. 3문단을 통해 나무토막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전체 위치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5문단에 ‘이 중력들을 다 더하면 중력 전체가 마치 한 위치에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가상의 점이 있는데, 이를 중력 중심이라고 부른다.’와 일치한다. ㉤ 3문단의 ‘이때 나무토막이 위로 힘을 받는다는 것은 아래로 향하는 중력보다 위로 미는 더 큰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힘이 바로 부력이다.’와 일치한다.

22. 위치에너지는 ‘중력과 높이를 곱한 값’이고, 중력은 ‘질량과 중력가속도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을 경우에는 질량이 적게 나갈수록 위치에너지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 ㉢ ‘위에너지 = (채운 물의 위치에너지) + (돌맹이의 질량 - 대체된 물의 질량) × (중력가속도) × (높이)’가 되는데, 돌맹이의 질량은 대체된 물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위치가 높을수록 수조 전체의 위치 에너지 역시 커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3문단의 ‘나무토막은 전체 위치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인 위로 힘을 받아 떠오른다. 이때 나무토막이 위로 힘을 받는다는 것은 아래로 향하는 중력보다 위로 미는 더 큰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힘이 바로 부력이다.’로 보아, 중력보다 부력이 큰 경우에는 위치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인 위로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물체의 질량이 대체된 물의 질량과 동일한 경우에, 위치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에서 ‘(물체의 질량 - 대체된 물의 질량)’의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높이가 달라져도 전체의 위치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23. 물속에 나무토막이 있는 경우에 전체 위치에너지는 ‘(채운 물의 위치에너지) + (나무토막의 질량 - 대체된 물의 질량) × (중력가속도) × (높이)’이다. ㉠의 경우에는 나무토막의 질량과, 나무토막이 물에 잠긴 부분과 같은 부피의 물의 질량은 같기 때문에 전체 위치에너지는 채

운 물의 위치에너지와 같다. 나무토막을 들어 올리면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적어지므로 ‘나무토막의 질량 - 대체된 물의 질량’은 양의 수가 되므로 전체 위치에너지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 때의 전체 위치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나무토막에 작용하는 중력은 나무토막을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반면 나무토막을 들어 올리면 물에 잠긴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부력은 작아진다. ㉤ 나무토막을 물속으로 밀어 넣으면 부력이 커진다.

24. 중력 중심의 위치가 낮아지면 복원력이 높아진다.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 지붕을 얹음으로써 중력 중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복원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의 위치를 갑판 아래로 내려 놓아지는 중력 중심을 아래로 낮출 수 있게 한 것이다. ㉡ ㉠ 판옥선에 지붕을 올리면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 복원력이 낮아진다. ㉢ 가로 폭이 길수록 복원력이 높아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 복원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쪽에는 부력이, 반대 방향에는 중력이 작용해야 한다. ㉤ 거북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력 중심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25. 글쓴이는 (가)에서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비판 논거의 핵심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이해관계의 총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기술은 사회적으로 통제가능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기>로 제시된 ‘수업의 개요와 목표’에서 ‘실천’은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천을 의미하게 되며, 글쓴이는 이 수업을 통해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26. (가)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의 발전 경로’를 추적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나)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로 여기는 사고가 놓여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견해는 기술을 인간 사회와 독립된 자율적 실체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27. (가)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연구 결과를 논거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글쓴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28. [B]는 ‘거대 기술시스템’의 한 예이고, [C]는 기술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나)에 의하면 이러한 거대 기술시스템은 사회구성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율적 실체로 보일 수도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지적이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은 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율적인 실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든 ‘결정적으로’든 기술은 사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자료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⑤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다.

29. 문맥으로 보아 ㉠의 ‘나아가다’는 ‘어떤 정도를 넘어 확대되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비약’과 같은 말이 적절하다.

30. ㉠은 큰집으로의 이동, ㉡는 국숫집을 찾아가는 공간적 이동 상황이 시상 유발의 계기가 되고 있다. ㉢ ㉣의 경우 단정적 어조라기보다는 담담한 어조로 볼 수 있고 두 작품 모두 현실 비판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 ㉥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갈등 상황과 관련이 없다. ㉦ ㉧에는 대상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며, ㉨에서는 누나와의 유사성이 언급되지만 그것이 시적 상황이 확장과는 관련성이 없다. ㉩ 두 시 모두 명사형 시행 종결이 드러나지만 소박한 삶의 모습을 긍정한다는 내용은 ㉨는 전혀 관련이 없다.

31.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는 냉혹한 삶의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설날 음식과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산을 넘어 있다’는 간접 경험이고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웃이 정하던’은 직접 경험에 해당한다. ㉡ 심지를 몇 번이나 돌우었다는 행위는 시간의 경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다. ㉢ ‘몇 번이고’의 반복에서 드러난다. ㉣ ‘단 하루’의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아버지의 제삿날이 지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다)에 따르면 보잘것없고 소박한 인물들마저도 포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번에서 언급되어 있는 특징도 가족 공동체 내에서 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 청원이 계영과 쌍섭에게 “그대들의 주인아씨가 ~ 그대들은 나를 따라오시오.”라는 말을 하자 계영과 쌍섭이 크게 의심을 한 점으로 보아, 그들이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명주암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 처음 부분에서 조씨는 남 부인에게 독이 든 쌀죽을 보내 독살하려 한다. 그리고 체념한 남 부인은 이를 알고도 독이 든 쌀죽을 마신다.

34. ㉠은 조씨가 남 부인을 독살하려고 한 날이고, ㉡은 청원이 관음보살 꿈을 꾸 다음 날이다. 청원은 관음보살 꿈을 꾸 다음 날 남 부인을 구하기 위해 명주암으로 떠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조씨가 남 부인을 독살한다. 그러므로 ㉡의 사건은 ㉠의 사건보다 앞서 발생한 것이다. ㉢ ㉣은 청원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남 부인에게 닥칠 위험을 알려 주는 부분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청원이 꿈을 꾸고 난 다음 남 부인을 구하기 위해 명주암으로 떠났으므로 이후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 ㉥은 조씨가 남 부인을 죽이려는 날이고, ㉦은 그날 밤을 의미하므로, 시간적 간격이 ㉣과 ㉤의 사이보다 짧다. ㉧ ㉨, ㉩, ㉪은 모두 조씨가 남 부인을 죽이려고 한 날이다. ㉫ ㉬은 청원이 남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명주암으로 떠난 날이고, ㉭은 청원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남 부인을 구할 것을 알려 주는 때이다. ㉮은 ㉬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다.

35. ㉠과 ㉡에서 각각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남 부인을 돕고 있으나, 이는 현실 세계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하여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현실 세계를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6.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7. (가)에는 ‘천불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고, (나)에는 ‘속리산’에 오르면서 세속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이 시상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의 경우 ‘바위’를 보면서 ‘계구대’에 오르고, ‘피세대’와 ‘격진령’ 등으로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으로는 ‘공간의 이동이 시상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 적절하다. ㉢ (나)와 (다)에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으로 볼 만한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양상

이지, 자연물이 삶의 모습으로 치환되는 양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⑤ (가)의 경우 특정한 시적 대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산’이나 ‘천불산’을 시적 대상으로 보더라도 그 속성이 인간의 삶과 대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38. (가)의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로 볼 때, 화자는 ‘천불산’에 올라와 어두웠던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깨달음)를 얻고 있다. (다)의 화자는 ‘계구대(戒懼臺)’에 올라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못 보고 못 듣는 세상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가)의 ‘천불산(千佛山)’과 (다)의 ‘계구대(戒懼臺)’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㉔). ㉕ ① (가)의 ‘개밥바라기 별’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가)의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는 화자를 재촉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의 ‘직립불의(直立不倚 : 의지하지 않고 꼳꼳하게 바로 섰)’는 인간은 하기 어렵지만 바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9. ㉖의 ‘솔바람’은 나를 부추겨 ‘내 막막함’도 올라가게 함으로써 ‘번쩍 제정신이’ 들도록 한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솔바람’을 화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방해하는 차원, 일시적인 혼란의 원인이 되는 차원으로 설명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40. (나)에서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의 주체는 ‘속리산’으로, <보기>로 보아 ‘속리산’은 화자에게 ‘등산(登山)’의 수직성이 아닌 ‘입산(入山)’의 수평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따라서 ‘~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를 입산의 수평성이 지닌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㉔)은 적절하지 않다. ㉕ ②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에는 더 높이 오르려고 조바심 내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는 산을 높이의 상징으로 설정하여 정복하겠다는 욕구와 관련이 있으므로, 입산(入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일상의 ‘그 하루 하루가 /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라는 표현은, 일상적 삶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1. (나)에 비해서는 (다)가 영탄적인 어조를 통해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다)의

각 수 종장에서 영탄적인 어조를 통한 정서의 표출을 확인할 수 있다. ㉕ ① (나)의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 주었다’에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전달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산(속리산)’에, (다)의 <제1수>와 <제9수>에서는 ‘바위’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42. (다)의 <제28수>는 격진령에 올라 ‘홍진(紅塵 :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이르는 말)’의 시끄러운 ‘시시비비(是非非非)’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다. 귀가 먹어 가는 상황이지만, 속세의 시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만족이나 안도의 마음이라는 점에서, 귀가 먹어 가는 원인을 속세의 부정적인 요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㉔는 적절하지 않다.

43.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나’이다. ‘나’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을 서술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44. ㉖의 ‘풀빵을 구워내는 빵틀이나 냉차’는 농촌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다. 특히 ‘빵틀’은 서술자가 난생 처음 보았다고 할 만큼 낯선 것으로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한다.

45. ‘나’는 아버지를 무능하지만 그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가 정직하다고 여기며, 아버지가 무능한 것은 ‘(아버지 앞에 놓인 상대가) 결코 함부로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풀빵 기계를 사왔을 때 기대를 가지며, 풀빵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연거푸 실수를 할 때도 재미있게 웃어넘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모내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데서, ‘나’가 반평생 넘게 의지해 온 삶의 터전인 ‘흙’을 떠나와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이해하며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